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율법에서 성령으로 성경: 사도행전 9장 10-15절

Tag: 성경이야기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9:10-15)

오늘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겠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의 열정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 특출났다.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율법주의다. 자신의 열정을 성취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옥죄는 것을 선택한다.

법의 취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지,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울의 열정은 율법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의 잇속이나 챙기는 사

악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열정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법이란 올바른 관계성 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핵심 가치는 사랑으로 귀결된다. (노란봉투법은 올바른 관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미디안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율법의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즉, 율법 준수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고 율법의 정체성은 그 목적을 위한 올바르고(공정하고) 합리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율법을 위해서 살인한다면? 성경에는 예가 있다.

예)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한 남녀를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음행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비느하스의 의분이 하나님께는 염병을 그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다.

당시 이방 여인과의 음행은 곧 우상숭배 제사의 한 절차였기 때문에 명백한 십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고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는 범죄였다.

당시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의분에 찬 심판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당시의 긴박한 정황을 반전시킨 장본인이었다. (이런 사건을 오늘날의 법개념으로 해석하면 곤란함. 당시 미디안족속은 전쟁 대상이었고, 아말렉과 같이 그들은 진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발람은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도록 계락을 꾸몄고, 일부 남성들이 그 계락에 빠져가던 중이었음. 만약 이들을 그 하고 싶은대로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자체가 더 늦추어질 형편에 처하게 되었음. 능구렁이 같은 거짓선지자 발람.)

왜 구약성경에는 이처럼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악이 메아리가 되어 계속해서 저주를 부르게 되어 있었는데, 누구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동일한 죄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구약 시대처럼 양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를 씻게 되는 형편에서는 죄악의 확장을 막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사용하신 셈이다.

왜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울이 율법을 근거로 스테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울도 율법에 대한 의분이 강력해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기세를 몰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와 산헤드린 앞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율법 자체에는 틀림이 없다. 일점 일획이라도 어김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대해 너무 세밀하게 적용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괴롭히고 있었다.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성들-율법주의가 진행될수록 사랑은 매말라 간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질투심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적용법을 대 놓고 여기는 예수님의 행동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다. 율법의 시작과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서 율법을 여기는 일은 결코 없다. 또 정결법과 제사법을 완결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서 바리새인들의 적용법을 따른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뿐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달았다. 자기들 사이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매우 컸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적용법에(율법 그 자체도 아닌) 목을 댔다. 영적 질투심, 또는 기득권 사수로 밖에는 다른 해석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증거들을 보여 주었어도 안식일 적용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겼다.(취꼬리 핑계로 자신의 불신앙을 커버 쳤다-때웠다.)

그래서 그런 억지 논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십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해서 스테반까지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율법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어기는 사건인 셈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진 율법은 그야말로 율법 정신 자체를 배반하는 율법주의일 뿐이다.

율법을 핑계로 율법정신인 사랑을 훼손한 사건이다.

결국 율법주의에 깊이 사로잡힌 바리새인, 특히 율법에 대한 열정이 강력한 사울은 그만 스테반을 죽이고 말았다. 비느하스의 정황과는 너무 달랐다.

사울은 내친김에 교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했다. 사로잡힘을 모면한 성도들은 지방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다.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 갔다는 첩보를 접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영장과 병사를 청구했다. 이렇게까지 하는걸 보니 그가 매우 열정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작동되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자유의지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더욱 자유의지가 있으시다. 이 둘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이길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정당하겠는가?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당당할 수 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강력한 빛이 자신을 둘러 싸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다.

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강력한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이 멀어 버렸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에 빠져 사흘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기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느라 급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아무리 열정이 충만해도 때때로 밀려오는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돌아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화로웠던 얼굴

표정,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스테반의 목소리가 귓전에 계속 들려왔다.

아무리 해도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런 마당에 갑작스런 강력한 빛과 예수님의 강력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경험은 사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심지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제대로 된 경험인지, 귀신에 씌운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에 두 번째 개입하시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셨다.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 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어떻게 해야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믿게 될른지를 아셨다.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율법주의에 빠진 사울, 그런 사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아나니아의 나타남은 그 어떤 의심도 불필요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사울 자신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곁에 있던 병사들도) 모르는 사건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확증하셨다. 사울은 두 번째 꼬꾸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완전히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의심을 해제하고, 모든 율법주의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모든 악독과 살인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셈이다. 그래서 바울이 된 사울은 평생을 살면서 스테반에게 속죄하는 삶을 살았고, 그를 대신하는 삶을 살았다.

사울의 열정은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다시금 세속과 불공정과,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에 저항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의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열정이 남다른 코끼리는 없다. 설혹 코끼리의 열정이 뛰어나도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세상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지구 상에는 멸종된 동물들도 많다. 북극의 곰이 없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나, 그렇다고 곰들이 없으면 지구에 종말이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 한때는 모기를 전멸시키려는 노력을 소위 인간이라는 종족이 무시무시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 그러나 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지금도 왕성하다. 중국에서는 한때 참새나 쥐를 박멸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오히려 인구가 3,000만명이나 아사한 예가 있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건 인간이 맘대로 그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역사 이래로 수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세상을 변화 시켰다. 간혹가다 그들의 열정이 세상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이시며 세상을 운행하신다.

(인류의 잘못된 열정. 1940년 DDT 규제, 1970년대 인구폭발 이론, 1972년 자원고갈론, 1970년대 식량기근, 40억 아사론, 1980년 자연 파괴 숲 파괴, 1990년대 이산화탄소 온난화 문제-지난 10년동안 열파로 죽는 자 보다 한파로 죽는자가 400배가 넘는 1500만명이다.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도 겨우 0.06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00만명 영양실조, 300만명 에이즈, 공기오염 250만명, 물부족 200만명, 영양결핍 200만명 사망-쿨잇-진정하라.)

독일은 한때 히틀러를 향한 국민적 열정으로 유명한 나라다. 그들은

유럽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말았다. 일본도 한때 천황을 위해 온
젊음을 불태운 나라다. 그러다 일본은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다. 지금
도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온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세계를 향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인간의 잘못된 열정은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린다.)

바울은 한 때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열정이 극에 달한 사람이었
다. 그는 교회의 최대의 적이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의 율법
주의에 대한 열정을 성령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셨다. 방법은 하나님
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시는 것으로.

그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사울은 아웃 사이더. 그러나 성령을 받으
면서 그는 교회를 위한 사도로 살게 되었다.

<찬양예배>

제목 : 제자의 삶 성경: 마태복음 5장 17-32절

Tag: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완성하게 하려 오심.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말하는 관용구

-폐함이 아닌 완성을 위해 오심. 오신 목적이 율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심.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유한성과 미래완성형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책임

-리더에게 책임이 있음. 목사, 가장, 인도자

-잘못 가르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주어짐

-그는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도 있는 계급. 그것은 영원한 계급일까?

-행하며 가르치는자

-행함 없이 잘 가르치는 자

-행함도 없고 잘못 가르치는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교급 사용, 율법주의자 보다는 나아야 하리라. 그렇지 못하면 낙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율법주의에 빠진자의 딜레마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인격 살인, 인격 존중이 살인죄의 핵심임.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만한 일;형제를 희생양 삼는 경우가 많다. 동그라미 의 경우.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일단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가라;양을 끌고 가는 것은 양에게 무리가 됨.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임

-화목코저 하지 않는 형제에게는 7번 사화하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급하게 합의하라.

-너무 쉽게 합의하지도 말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 다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

- -4배 배상이 하나님의 뜻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람 피는 것- 요즘 우리나라의 중요 죄목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음욕을 품는 것; 간음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큼; 이것 자체가 죄악
- 불륜은 가조관계를 해침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5:17-32)

-기독교가 간음죄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다.